은행의 합병 성공에 미치는 요소 분석

손소영* · 박정훈*

*연세대학교 기전공학부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 합병의 성공이 합병된 조직에 대한 직원들의 전념 정도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Mottola et al.(1997)의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 은행의 M&A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하였다. Mottola et al.(1997)의 연구에서는 실제 합병 상황에 있는 직원이 아닌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현실감이 떨어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한빛은행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로 분석(Path analysis)을 위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직원들이 인식한 합병형태와 원래 소속되었던 은행별(한일은행, 상업은행) 직원들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잠재변수(구성원 대우에 관한 그룹간 관계, 은행의 지원 인식, 직원들의 은행에 대한 귀속감, 직원들이 느끼는 위협, 은행에 대한 직원들의 전념)들간에 인과 관계를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합병형태별, 소속은행별 직원들의 전념도에 미치는 여러 요소들의 패턴이 다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한빛은행의 경우, 합병한 후에 두 은행의 직원들이 합병이 된 후에도 똑같이 대우받거나 직원들이 은행에 대한 귀속감을 느낄 때 직원들이 은행 일에 전념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은행의 지원을 직원들이 인식할 때 직원들이 느끼는 위협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한일은행은 합병한 후에 두 은행의 직원들이 똑같이 대우받고 은행에 대한 귀속감이 증가할 때 은행에 대한 직원들의 전념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하지만, 상업은행은 은행의 지원을 직원들이 인식할 때 직원들이 느끼는 위협은 줄어들고 위협을 받을 때 더 열심히 은행 업무에 충실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 한빛은행의 합병 형태를 혼합이라고 생각한 직원들은 은행에 귀속감을 많이 느낄수록 은행 일에 전념하는 한편, 은행의 지원을 직원들이 인식할 때 오히려 직원들이 업무에 전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합이라고 생각한 직원들은 은행에 귀속감을 느낄 때 은행 일에 전념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은행의 지원을 직원들이 인식할수록 직원들이 느끼는 위협은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앞으로는 다른 합병 은행인 하나은행(하나+보람)과 국민은행(국민+장기신용)을 대상으로 경로 분석을 하여 은행별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연구할 것이다. 또 은행과는 다른 성격의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학부제로 통합된 학과를 대상으로도 적용해 보겠다.